

# 설교 비평과 설교적 상상력: 생성 AI 시대와 설교자

구아름\*

## 【 국문초록 】

생성 AI의 도래는 설교자의 정체성과 역할에 관한 질문을 가져왔다. 이 연구는 생성 AI의 단점을 찾고 인간 설교자만 할 수 있는 기능적 독특성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자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긴장과 낯설음 안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인 시너지를 수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설교 비평과 설교적 상상력을 숙고한다. 설교 비평은 폴 윌슨(Paul Wilson)의 주장에 따라 초기 성경 읽기인 사중 읽기 방식—역사적(historical), 알레고리적(allegorical), 도덕적(moral), 예언적(prophetic)—을 고찰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역사적 읽기와 신학적 읽기가 얼마나 풍성한 방식으로 대화하며 설교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보여줄 것이다. 설교적 상상력은 이러한 설교 비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로 설교 비평과 상상력을 위한 관점 및 태도를 배양하고, 지금껏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온 관점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을 설교에 가져올 수 있게 하는 현대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윤리적 쟁점 등을 살펴볼 것이다. 듣기의 윤리는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목소리들, 배제되었던 목소리들에 고도의 민감성(hyper-sensitivity)을 요구한다. 얕은 윤리는 인식론적 정의의 실천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을 읽을 때 가질 수 있는 이미 공유된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 체계가 지닌 편견과 한계를 직면하게 한다.

설교 비평과 상상력 그리고 이를 위한 윤리적 숙고들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설교의 환경 속에서 설교자의 끊임없는 즉흥성(improvisation/variation)과 창조성의 실천을 격려한다. 이러한 실천은 설교가 (말)하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것으로서 총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재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주제어:** 설교/신학(적) 비평, 설교적 상상력, 현대, 듣기의 윤리, 인식론적 부정의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 논문 접수일: 2024년 04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24년 05월 02일

• 논문 심사일: 2024년 04월 30일

## I. 들어가는 말: 정체성과 두려움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가졌던 두려움 중 하나는 거대서사에 대한 불신이었다.<sup>1)</sup> 기독교 거대 서사—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는 기독교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설교들은 이 거대 서사 안에서 성경, 믿음, 그리고 복음을 해석해 왔다.<sup>2)</sup> 기독교의 거대 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억과 재진술의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언약과 구원의 행위에 대해 기억하고 희망하게 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합당한 삶의 윤리적 속성들을 따라 살아가게 했다.<sup>3)</sup> 그렇기 때문에 거대 서사에 대한 의문과 불신을 그 특징 중의 하나로 삼는 포스트모던의 이해 방식은 주로 거대 서사를 받아들여 왔던 기독교 전통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주었다. 더불어 포스트모던 지식은 차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및 적용 능력을 요구했다. 즉, 확립된 지식체계에서 벗어나 불안정성(*instability*)에 대해 탐색하고 명확하고 단선적으로 설명 가능한 서사가 아닌 경계를 넘나드는 역동과 역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이 필요해지기 시작했다.<sup>4)</sup> 포스트모던 접근이 진실을 해체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전통과 관련하여 이는 공동체의 경계를 흔드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종종 배타적인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1) Jean Franç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xxiii.

2)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설교한국』 15 (2022): 13.

3) Christopher J. 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4), 26.

4)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54.

이 거대서사에 맞지 않는 경험이나 해석들, 특정 지적 전통, 혹은 특정 시각을—그것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하찮게 만들거나, 주변화하거나, 혹은 억압”해 왔기 때문이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이 언급하듯이, 인종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여성 운동의 부상 등 다양한 억압과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이해하고 고려하기 위해 씨름해 왔고,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점점 절망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비전이 아닌 긍정적 비전을 주려 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sup>6)</sup> 혁명으로 불리는 생성 AI 시대의 도래는 예술, 언론, 윤리,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복잡함과 긴장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도전으로부터 야기된 두려움은 정체성과 해석 및 적용 능력에 있어서 새로운 분투의 필요성을 일으켰다.

2023년 6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자들 이천 명을 대상으로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목회데이터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생성 AI의 대중화된 형태 중의 하나인 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조사는 대다수의 교회 출석 개신교인들이 챗GPT 알고 있으며(구체적+약간)—교회 출석 개신교인의 59%, 목회자의 79%—답임목사 5명 중 1명 이상이 교회 사역을 위해 챗GPT를 사용하고, 그중 80%가 설교 및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획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점은 챗GPT를 활용한 목회자의 설교문 작성에 대해서 성도의 64%가 부적절하다(약간[36%]+매우[29%])라고 대답했다는 점이다. 부적절하다는 반대 이유 중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설교 준비에 필요한 개인

- 
- 5) J. Richard Middleton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95), 71.  
6) Gayatri Chakravorty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31.

적인 묵상과 연구가 감소하기 때문이 58%, 설교자의 생각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 34%였다. 설교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76%가 부정적이었으며, 교회에서 챗GPT 사용시 목회자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지배적이었다.<sup>7)</sup>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7개 언어를 구사하고 남성 혹은 여성 목소리와 다양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고, 손에서는 광채가 나오는 로봇 목사 BlessU-2에서 이러한 우려들은 이미 일부분 구체적으로 보여졌다. 이 로봇 목사가 속한 빛의 교회(Church of Light)는 인간 목사가 세례와 결혼식을 집례하며 로봇이 목회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 교회는 로봇 목사는 교회의 사역을 로봇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세상에 신학적 관점을 접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호 실험이었다고 언급한다.<sup>8)</sup> 빛의 교회에서 추가로 제시한 이 설명은 챗GPT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나타나는 우려 들과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챗GPT를 사용한 목적과 범위가 어떠한, 생성 AI가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수행해 온 설교 준비 노력과 비교할 때 소위 효율적으로 수없이 많은 설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설교자의 정체성과 역할이 흐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졌으며 많은 질문들을 불러 일으켰다: 생성 AI의 설교가 불특정 다수의 설교 참여자들에게 말씀의 예전으로 인식되고 수행된다면, 설교자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와 상황의 복잡성 및 특수성은 어떻게 고려 될 수 있을 것인가? 보편성과 다양성 사이를 어떻게 조율할

7)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2023, 06, 10)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1&page=2](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1&page=2)

8) LichtKirche, “A warm welcome to the Church of Light at the World Reformation Exhibition!”

<https://lichtkirche.ekhn.de/welcome.html>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총체화 되거나, 이분법적이거나, 혹은 배타적이지 않은 관점에서 생성 AI와 더불어 설교자 정체성과 기독교 영성을 설교에서 구현해 낼 수 있을까? 생성 AI 시대에 설교자들이 지녀야 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평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생성 AI의 단점을 찾고 인간 설교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능적 독특성을 찾기 위한 방식으로 설교자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한 긴장과 낯설음 안에서 생겨나는 창조적인 시너지를 수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설교 비평과 설교적 상상력을 고찰한다. 설교 비평은 문자적 감각(이미 축적된 정보)과 영적인 감각(설교자의 읽기를 통한 축적된 정보의 활용 및 확장)이 얼마나 풍성한 방식으로 대화하며 설교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허락할 것이다. 설교적 상상력에 대한 논의는 설교 비평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설교자가 지니는 상상력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설교 비평과 상상력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는 관점 들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소외되거나 무시되어 왔던 관점(목소리)들을 복음의 일부로 가져오는 환대적 해석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윤리적 실천들은 지속해서 변화하는 설교의 환경 속에서 설교자의 즉흥성(improvisation/variation)과 창조성의 실천을 격려한다. 나아가 유도라 웰티(Eudora Welty)의 단편 소설 <닿고 닿은 길(A Worn Path)>에서 아픈 손자를 위해 다양한 장애물과의 만남을 비롯하여 자신이 왜 걷는지도 모를 때까지 약을 구하러 같은 길을 수 없이 걷는 피닉스(Phoenix)와 같이, 이 즉흥성과 창조성이 일회적인 반짝임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이 기반이 되는 삶의 태도이자, 실존적 열성이자, 영성이 되게 격려한다.<sup>9)</sup>

생성 AI 시대는 설교자들에게 자신을 점검할 줄 알고, 변화에 열려

있고, 무엇이 어떤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고, 다양한 역동성을 연주할 수 있는 즉흥성과 창조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생성 AI시대에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직면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그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되새기고 회복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할 부르심에 관한 것이다.

## II. 설교/신학(적) 비평(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sup>10)</sup>

설교자들은 성경 석의나 본문의 역사적 이해 혹은 문법적 이해를 설교를 위한 충분한 준비라 여길 수 있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생성 AI가 제공할 수 있는 풍성한 정보는 적절한 예화, 기존에 쓰여진 설교 내용, 혹은 석의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등 설교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식으로 설교를 돕기 때문에 설교자의 역할을 거

9) Eudora Welty, "A Wom Path," in *A Curtain of Green and Other Storie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41), 275-89.

10) 찰스 바토우(Charles Bartow)는 설교 비평은 교육적, 전문적, 학문적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언급한다. 교육적 유형은 설교 학자들의 이론에 근거한 비평으로 설교에 대한 이론적 비평이다. 전문적 유형은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매우 실제적인 신학적 평가를 하는 것이다. 학문적 유형은 모범적인 실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설교 이론에 대한 함의를 발견하기 위해 수행되는 비평적 연구이다. Charles L. Bartow,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by Paul Scott Wilson, 154-57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154. 그러나 폴 윌슨(Paul Wilson)은 성경의 4중 읽기가 사라지지 않고 설교 비평의 형태로 변형 발전되었다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윌슨이 이해하는 설교 비평은 역사비평과 신학 비평처럼 설교를 위해 성경을 해석하는 학문적 실천으로 본문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오늘날의 삶에서 듣게 하고, 수사학과 시학의 도움을 받아 설교의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Paul Scott Wilson, *God 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86. 본 연구는 윌슨의 설교 비평의 이해에 의지하고 있다.

11) Wilson, *God Sense*, 7.

의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설교는 다양한 예화나 그동안 쓰여온 관점이나 해석 방식으로만 형성되기 어렵다. 설교의 중요한 역할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세상 안에 있게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설교자가 본문에서 오늘의 특정한 상황, 개인, 혹은 공동체에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발견하지 않고 설교를 작성하는 것은 설교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놀라운 경륜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신학적 감각(theological sense)’ 혹은 ‘영적 감각(spiritual sense)’을 포함한다.<sup>12)</sup> 이러한 읽기는 본문은 통시적이기보다는 공시적으로 읽기 때문에 성경 본문과 오늘의 상황과의 상상적 공명을 통해 비교와 유비를 만들어 낸다.<sup>13)</sup> 이 감각의 중요성은 설교의 수행에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루돌프 보렌(Rudolf Bohren)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설교자의 역할과 성령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성령이 사건을 시작하지만, 그 성취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sup>14)</sup> 즉, 성령은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오늘 특정 공동체 혹은 설교 참여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명명할 것을 허락하시는데, 보렌은 이러한 주어진 설교자의 역할이 성령의 케노시스(kenosis), 즉, 자기 비움과 권리 위임을 통한 사역이라고 이해한다.<sup>15)</sup> 결과적으로 보렌은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설교자의 해석 행위에 대한 수용을 통한 ‘상호 개방’의 상태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설교자는 설교의 적

12) Wilson, *God Sense*, 16.

13) Wilson, *God Sense*, 87. 일슨의 설교 비평은 영적 감각을 통해서 본문을 확장하고 오늘 여기에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삶이 제기하는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14) Rudolf Bohren, *Predigtlehr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83.

15) Bohren, *Predigtlehre*, 233.

극적인 주체로서 성령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설교를 수행하게 되고, 이 관점에서 설교 비평은 수사학적 규범, 수행적 규범, 그리고 문자적이고 역사적 연구를 무시하지 않는 신학적/영적 감각을 중요시하는 비평이자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월슨은 역사비평, 신학 비평, 설교 비평의 세 가지의 비평 방식이 분리되지 않고 동시에 어우러지는 것이 설교 비평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세 가지가 별도의 연속적인 단계가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6)</sup> 즉, 성경 본문을 연구하기 위해 설교 비평은 상상력을 매개로 본문, 하나님, 그리고 회중의 간극을 잇는 중요한 실천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다의적인 성경 읽기인 사중 읽기(fourfold exegesis)—역사적(historical), 알레고리적(allegorical), 도덕적(moral), 예언적(prophetic)—은 균형 있고 풍부한 설교 비평을 위해 숙고할 만한 기초가 되는 좋은 통찰들을 제시한다.<sup>17)</sup>

### 1. 문자적 감각<sup>18)</sup>

문자적 감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읽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월슨은 역사에 대한 분석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는 성경 본문을 성도들에게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이를 위해 성경의 지리와 정황

16) Wilson, *God Sense*, 87-88.

17) Wilson, *God Sense*, 12.

18) 최진봉은 *God Sense*의 번역본 '성경 속 하나님 읽기'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19)에서 sense를 “의미” 혹은 “읽기”로 번역한다. 본 논문에서는 sense를 초기 교회의 성경 읽기에 대한 감각을 보존하면서 현대의 시선을 지닌 창조적 재발견의 의미로서 관점(perspective/lense)의 의미를 담아 “감각”이라고 번역했다.

등을 살피고 각 책이 쓰인 상황과 본문이 쓰인 장소나 위치 등을 살필 수 있으며 이것들을 생생하게 통합하여 그려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적 상상력이다.<sup>19)</sup> 본문의 등장인물이 가진 하나님의 생각을 고려하는데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안에서 혹은 뒤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중요한 주해의 한 형태가 된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 다양한 성경 비평이 등장하고 과학적 탐구와 문학 비평들을 통해 해석자들은 본문을 읽는 다양한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본문을 그저 다양하게 읽는 것에 머무른다면 의미를 찾는 행동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 성경의 역사적인 감각과 더불어 신학적인 감각을 지니고 본문을 읽는 것은 중요하다.

브레바드 차일즈는(B. S. Childs) 성경의 문자적 감각 안에 신학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주해를 시도했다.<sup>20)</sup> 차일즈는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일방향이 아니고 선형적인 이해가 아니라 두 책의 다양한 증언들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함께 수용하려 했다. 차일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적 역사와 외적 차원을 모두 반영하며, 신과 인간의 선택을 모두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오가며, 전경과 배경 둘 다의 관점을 지닌다.<sup>21)</sup> 이러한 신학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해석 경향인 탈식민주의, 여성주의, 소수자 해석학 등이 지니는 소외와 억압에 관한 질문들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억압자와 억압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고, 둘 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권력과 억압을 식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닌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sup>22)</sup> 즉,

19) Wilson, *God Sense*, 36.

20) Brevard S.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99.

21) Child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100-101.

사회적인 쟁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 쟁점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복음의 언어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러한 식별은 율슨의 고유한 신학적 그리고 설교적 문법인 문제와 은혜의 역동성 안에서 일하게 되는데, 인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일하심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자적 감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역사적 정보의 나열이 아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신학적 상상력 그리고 다양한 증언들과 시공간적 얽힘의 역동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오늘을 읽음으로 성경의 역사는 오늘의 공동체의 현재가 된다.

## 2. 알레고리적 감각

초기 성경 해석자들은 본문의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는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해석했다. 이들은 본문을 문자적 또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영적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sup>23)</sup> 이러한 영적인 해석 방식을 알레고리적 읽기라고 불렀다. 여러 가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 알레고리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알레고리를 유비와 은유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본문과 오늘날의 회중의 삶을 연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율슨이 자신의 네페이지 설교 방법에서 성경과 오늘날을 잇는 방식이기도 하다.<sup>24)</sup>

22) Wilson, *God Sense*, 71.

23) 앤드루 라우스 편/하성수 역,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1』 (서울: 분도출판사, 2008), 23-26.

24) 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2018).

즉, 본문에서 나타난 관심을 현대 회중의 관심과 연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 36-50절에서 ‘그 여자는 죄인이다’를 ‘우리는 죄인이다’로, ‘그녀는 사회적 지위가 없다’를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다’로 그리고 ‘그녀는 용서를 많이 받았다’를 ‘우리는 용서를 많이 받았다’로 연결할 수 있다.<sup>25)</sup> 알레고리를 유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 본문들 간의 연결을 위해 연속성을 밝힘으로써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이 통일된 하나의 목적을 지닌다고 보고 설교 본문과 공명하는 다른 본문을 가져옴으로써, 산드라 슈나이더즈(Sandra Schneiders)가 언급하듯이, 합의/협상적(accommodation)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sup>26)</sup> 이렇듯 알레고리적 감각은 일대일의 대응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넓은 성경 읽기의 방식이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적절한 연결들을 위해 설교자는 본문과 세상의 공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3. 도덕적 감각

성경 본문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성경의 문자적 감각이 본문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들을 파악하게 하고 해석자의 지나친 상상력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면 성경의 도덕적 감각은 삶에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안내자의 역할도 수행한다. 윌슨은 고대와 중세의 도덕적 감각을 통한 성경 읽기의 방식이 인간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인간 중심적인 해석에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로 인해

25) Wilson, *God Sense*, 143.

26) Sandra Marie Schneiders,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2nd ed.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9), 163.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sup>27)</sup>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도덕적 감각에 대한 적용은 명령이 아닌 초대로 이해되며,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닌 ‘성령의 함께 하심에 의해 가능한 일’로 ‘정답’이 아닌 ‘권유’로 전환될 수 있다.<sup>28)</sup>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와의 강력한 통합은 루터의 탐 체험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justification by faith)을 이해하고자 씨름했을 때, 그는 밤낮으로 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전한 자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루터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새로운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다고 고백한다.<sup>29)</sup> 즉, 기독교인들은 금욕적이고 자선을 베푸는 행위들로 자기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대가 없이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 선물이었다. 인간의 불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구원의 필요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증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sup>30)</sup> 루터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감각이 본문에서 특정하게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교훈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31)</sup>

설교자는 윤리적으로 절대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적 풍성함 속으로 설교자 자신을

27) Wilson, *God Sense*, 95.

28) Wilson, *God Sense*, 108-109.

29) Roland Herbert Bainto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65.

30) Otis Carl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284, 286.

31) Wilson, *God Sense*, 99.

포함한 본문의 참여자들을 초대할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은 환경파괴, 약물중독, 인종차별, 실업 등과 같은 오늘날의 회중이 직면한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교자들은 본문으로부터 그것들을 다루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sup>32)</sup> 성경의 그때와 오늘이 지닌 문화 사회 정치 가치관 등을 포함한 시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오늘의 다양한 위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던 이들과의 공명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복음의 언어로 가져올 수 있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모든 긴장 안에서 기어코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전히 이루어 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초대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다.

#### 4. 예언적 감각

예언적 감각은 종말론적인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종말론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궁극적 소망이자 약속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시각은 현재의 삶과 분리되어 이해되지 않는다. 데이비드 버트릭(David Buttrick)이 언급한 바와 같이 종말론은 단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미래이다.<sup>33)</sup> 기독교의 결말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면 설교자가 기독교의 삶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일정 부분 명확해진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통치는 ‘지금 여기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있으나 확실함 속에 선포될 수 있다.<sup>34)</sup> 셸리 거스리(Shirley Guthrie)는 종말론과 관련된 설교를 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거스리는

32) Wilson, *God Sense*, 105-106.

33) David Buttrick, *Preaching the New and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132.

34) Wilson, *God Sense*, 156.

하늘이나 지옥에 대한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세부사항들에 집착하는 것보다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미래이기에 안전하다고 여겼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스리는 성경의 저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지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여기에 즐겁고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sup>35)</sup> 또한, 거스리는 미래에 대한 성경적 언어는 인간 경험에 기초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은유적이거나 상징적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낙원(눅 23:43)의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라고 제안한다.<sup>36)</sup> 즉, 문자적 해석보다 상태적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추천한다. 예를 들어, 플레밍 러틀리지(Fleming Rutledge) 역시 심연(aybss)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악이 지배하는 현실이 된 영역”이라고 해석한다.<sup>37)</sup> 러틀리지에게 심연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는 인간의 죄와 정욕으로 인한 속박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거스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관심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임을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즉, 희망에 대한 성경의 세부 사항은 수시로 변하고 때로는 서로 다른 책에서 상충되고 통합되기 어려워 보이기까지 하는 지점들을 발견한다.<sup>38)</sup> 그러나 그 모든 끝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35) Shirley C. Guthrie, *Christian Doctrine*, 50th Anniversary E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18), 382.

36) Guthrie, *Christian Doctrine*, 383.

37) Fleming Rutledge, *The Crucifixion: Understan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15), 417.

38) Guthrie, *Christian Doctrine*, 385.

특별히 기독교의 종말론을 다루는 말씀들 중에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죄인들 소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나타난 신실하심의 약속과 구원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sup>39)</sup>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다시 올라가셨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마치 창조의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처럼 스스로의 다 이루심에 만족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찢기심 이후의 휴식을 취했을 것이다.<sup>40)</sup> 그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감정, 약함, 취약함, 한계 등을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온 예수의 삶, 버려지고, 외면받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이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던 삶, 그리고 기어이 당신의 모든 것을 찢고, 부수고, 또 나누어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을 사랑과 정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넘쳐흐르도록 부어 놓았던 죽음 그리고 다시 삶이 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사랑하시고 정의를 세우신 삶과 죽음의 걸음 이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마침내 “앉으신” 예수의 휴식을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그 보좌에 앉은 이는 그 권위와 위엄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 권위와 위엄 가운데서 자신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영원히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나라를 속히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적 감각을 지닌 설교는 그 예수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그려주는 것(envisioning)이다.

현대의 역사에서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선포를 더 실제적이고

39) Buttrick, *Preaching the New and Now*, 61-62.

40) Trevor Hart, *Confessing and Believing: The Apostles' Creed as Script for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22), 151.

확장된 비전으로 제시해야 할 도전에 직면한다. 정의, 평등, 평화, 환경 등의 심오하고 복잡한 문제를 종말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sup>41)</sup> 에스겔 37장 12-14절의 말씀으로 설교 된 “너의 희망을 붙들라(Hold on Your Hope)”라는 테레사 프라이 브라운(Teresa Fry Brown)의 설교는 현실의 절망과 상실 그리고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언적 감각을 설교에 구현했다. 프라이 브라운은 희망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조심스럽게 에스겔이 본 확실한 희망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게 하고 있다. 그녀는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희망을 살아낼 것을 격려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끔찍한 예측이 미디어를 가득 채우고, 커피 머신 주변을 가득 메우고, 대학 복도에 울려 퍼지고, 교회 주차장을 떠돌고, 정치권력의 전당에 정기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신앙은 마구잡이로 흔들립니다.

너무 많은 꿈이 드라마에 의해 연기됩니다.

너무 많은 사역의 순간이 광기에 의해 놓쳐집니다.

너무 많은 할렐루야가 증오에 의해 중단됩니다.

너무 많은 신념이 무뎉뎉함으로 인해 타격을 입습니다.

너무 많은 현실이 분노에 의해 망가집니다.

너무 많은 변명이 적개심에 의해 메아리칩니다.

(중략)

희망은 . . . 죽었습니다.

제 성스러운 상상 속에서 예루살렘 뉴스나 USA 투데이 또는 뉴욕 타임즈에 희망의 부고가 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략)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부분들이 하나 되고 계곡의 모든 파편이

---

41) Wilson, *God Sense*, 159.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뼈는 뼈대가 되어 시체(carcasses)가 되고 시체는 몸(bodies)이 되고, 모든 부분이 이 신성한 질서에 따라 살과 피부와 머리카락으로 뒤덮였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것이 화해하고 회복되었습니다. . . .

하나님은 겉보기에 잃어버렸고 죽었고 미래가 없는 것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중략)

하나님은 희망이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 . .

희망은 가까운 극장에서 상영되지 않습니다.

희망은 약속, 권력, 또는 지위가 아닙니다.

희망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닙니다.

희망은 신용카드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소망의 죽음을 승리로 삼으셨습니다. . . .

당신의 희망을 붙잡으십시오.<sup>42)</sup>

이와 같이 다양한 감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혹은 본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들을 설교의 참여자들이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즉, 월슨이 제안하는 설교 비평은 현대 설교가 초대 교회 읽기 전통을 창의적으로 회복하고 오늘의 관점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중심의 읽기의 풍부함을 발견해 나가는데 기여한다.

---

42) Teresa L. Fry Brown, *Weary Throats and New Songs: Black Women Proclaiming God's Wor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144-55.

### Ⅲ. 설교적 상상력 (homiletical imagination)

설교 비평은 설교적 상상력을 요구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신학적, 목회적, 윤리적 응답”의 측면에서 성경과 오늘날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발견하고 또 발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기 위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sup>43)</sup> 찰스 바토우(Charles L. Bartow)는 성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설교 참여자들의 순종은 의지가 아니라 불타는 상상력(a fired imagination)이라고 언급한다.<sup>44)</sup> 예를 들어,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되는 급한 바람소리와 불처럼 갈라지는 혀 같은 성령이 모인 이들에게 임한 사건은 비유로 이해된다. 즉, 비유는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에 해석을 더한 것으로, 신약에 기록된 성령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을 현대적인 의미로 채우면서 설교자를 포함하여 설교 참여자들에 의해 상상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sup>45)</sup> 설교에서 상상력을 사용하기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순수한 공상처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은 인간 정신의 모든 능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뜻이다.<sup>46)</sup>

19세기에 설교학자들은 상상력을 설교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20세기 말 해방신학은 설교학자들이 복음의 포용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세계 공동체를 재상상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상상력의 창조적 역할을 증폭시켰다.<sup>47)</sup> 토

43) Wilson, *God Sense*, 12.

44) Bartow,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154.

45) Bartow,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154.

46) Thomas H.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 by Paul Scott Wils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191-92.

47)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마스 트뢰거(Thomas H. Troeger)는 세 가지의 상상력을 제시한다<sup>48)</sup>: 1) 설교자가 청중이 자신의 관심사를 넘어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지구라는 더 큰 세계로 마음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감적 상상력; 2) 의도적으로 성령의 예상치 못한 신선한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성경과 전통, 새로운 세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구현하는 즉흥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식별하는 비전적 상상력; 3) 회중 속에 살아 있는 성경, 상징, 종교적 관습의 세계를 활용하여 기억과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는 전통적 상상력. 이러한 상상력의 지평 들은 앞에서 언급한 설교 비평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하며 상호 연관됨으로 모든 사람을 더 포용하고, 어떤 이미지들이 빠져 있는지 묻고, 다양한 본문 비평과 역사 비평적 도구를 사용하여 신중한 학술 작업을 통해 상상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sup>49)</sup>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에는 감각의 상호 작용이 존재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에 의해 목소리, 청각, 마주봄, 공감각적인 인간의 말에 직접 관여하고 계신다.<sup>50)</sup> 로버트 켄슨(Robert Jenson)은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한 수많은 질문들 중 항상 해야 하는 질문은 본문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교회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 질문이라고 지적한다.<sup>51)</sup> 윌슨 역시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읽기 중의 하나로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혹은 하나님이 이 본문의 배후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 지를 강조

48)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49)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2.

50) Bartow,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155.

51) C. E. Braaten and R. W. Jenson, *Reclaiming the Bibl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Co. 1995), 99.

한다.<sup>52)</sup> 이렇게 설교자가 신학적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은 신학적 읽기에 생동감을 줄 수 있고, 회중이 설교 안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윌슨은 자신의 창세기 3장 설교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혹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닌, 떠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그려낸다. 이를 위해 윌슨은 시편 139편 7-10절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과 하와와의 에덴에서의 마지막 대화를 상상한다.

에덴을 떠나는 길에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자초한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와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 네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 . .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에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한다면 떠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담이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와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자녀에 대해 염려할 때

52) Wilson, *God Sense*, 66.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기 위해 세상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 . .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 중 하나는 . . .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을 떠나 힘든 학교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입니다. . . . “너는 에덴을 떠나지만 내 사랑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내 영으로부터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니? 아니면 내 앞에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니? 내가 아침 날개를 타고 바다의 가장 먼 한계에 도달한다 해도 그곳에서도 내 손이 너를 인도할 거야. 나는 너와 끝나지 않았단다. . . . 나의 용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란다. . . . 나는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단다.”<sup>53)</sup>

이와 같이 설교자의 상상력은 강단을 섬기는데 축복이다.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열하는 움직임, 즉 분리되었던 것을 함께 엮어 놀라운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상상력이 중요한 자원이 된다.<sup>54)</sup> 특별히 생성 AI의 시대에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강단을 섬겨온 감각들을 고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강단과 환경을 통해 창의적인 방식으로 그 전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은 머물러 있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함께 창조해 가는 것이기에, 오늘 여기의 설교자들의 상상력을 통해 교회와 창조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즐거움 안으로 모두를 초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부르심 앞에 설교자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드릴(offering) 수 있다.

53) Wilson, *God Sense*, 76-77.

54)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52.

#### IV. 환대: 생성 AI시대의 설교 윤리

생성 AI의 정보는 기술에 접근이 쉬운 목소리들(기록되기 용이한 상황에 놓인 목회자 및 신학자들의 관점 그리고 정보 접근이 용이한 특정한 이슈) 그리고 반복되고 쌓여진 지배적인 주장들에 편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sup>55)</sup> 또한 다양한 배경에서 주어진 방대한 정보를 상황화하고 복음의 언어로 가져오는 것은 설교자에게 어떤 해석과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교 참여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역동성을 창조할 것인가 하는 도전을 준다.

스피박은 내러티브가 서로 경쟁하는 방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미 존재하는 내러티브를 보는 것이 아니라(retrieval) 침묵의 여정(the itinerary of the silencing)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6)</sup> 완벽한 서사가 아니라 다름의 서사 모두를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침묵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크리스틴 폴 (Christine D. Pohl)이 언급하듯이 스스로 지배적인 서사와 중앙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삶에서 주변부를 경험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 필요하다.<sup>57)</sup>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석적 권력을 지닌 설교자들에게 주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

55)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질문들,” 『신학사상』 201 (2023), 263-64; 서진호, “폴 틸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논단』 113 (2023), 185 각주 79;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 (2023), 242-43. 챗GPT와 설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우려들은 챗GPT가 데이터에 기반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1) 본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2) 각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3) 잘못된 정보의 사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 4) 표절의 우려가 있다는 점, 5) 성경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56)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31.

57)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B. Eerdmans, 1999), 123.

이고, 주변부를 경험하고, 수많은 삶의 거절, 결핍, 두려움, 상처, 취약함 등을 복음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방식의 성경 읽기는 레티 러셀(Letty Russel)이 말한 환대의 해석학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58)</sup> 러셀은 타자에 대한 경멸에 뿌리를 둔 차이, 배제,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그 누구도 타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환대의 전통을 찾는다.<sup>59)</sup>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은 설교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더불어 성경 안에서 보이지 않고 무시되어 왔던 존재들의 인식에 대한 해석적 민감성을 요구한다. 환대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설교자에게 끊임없는 창의성과 더불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혹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시선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쟁의 원리가 아닌 풍부함의 원리로 해석적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관점을 기르기 위해 설교자들은 듣기의 윤리와 읽기의 윤리가 어떻게 설교자들의 감각 안에서 일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으로 설교에서 환대를 실천할 때, 설교자의 윤리적 측면이 주는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은 생성 AI가 주는 축적된 자료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생성 AI는 설교자를 더 풍성히 알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침묵하고, 더 치열하게 분별하도록 도전하기 때문이다.

58) Letty M Russell,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48.

59) Russell, *Just Hospitality*, 43.

## 1. 듣기의 윤리

설교자의 관점은 설교자가 한편의 설교를 완성하기 위해 석의, 비평 방법들의 적용, 전달 등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배제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한다. 설교자의 관점은 설교자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주변 존재들,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직/간접적인 삶의 경험 등을 통해 쌓여진 수많은 해석적 층들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설교자의 관점은 완벽한 서사를 생성하는 권위가 아니라 다양한 서사를 복음의 언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한 취약성을 공유할 수 있는가? 등의 물음과 관련하여 해석적 주변성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sup>60)</sup> 이와 관련하여 설교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기독교 담론의 방향성을 배타적인 방식과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과 포용의 방식으로 찾아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적극적 참여로서의 듣기는 상호 대화와 의존성이 공동체 안과 밖의 다양한 서사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실천으로 작용하기에 중요하다.<sup>61)</sup> 듣기 윤리의 실천은 받아들여짐과 오류의 교정 가능성에 열려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며, 다양한 서사에 대한 환대가 그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sup>62)</sup> 설교자가 설교 참여자들과 세상을 듣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보다 더 심오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듣기는 강단뿐만이 아니라 강단 밖에서 역시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상호 대화를 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말하기의 권력과

60) Spivak, *The Post-Colonial Critic*, 31.

61)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25.

62)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 씨, 2020), 81.

관련하여 어떤 장벽들이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살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63)</sup>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목소리들, 배제되었던 목소리에 고도의 민감성(hyper sensitivity)을 가지는 것이 오늘날의 강단이 가져야 하는 사명일 수 있다.

레지나 슈워츠(Regina Schwartz)는 성경을 읽기 위해 “희소성의 원리(a principle of scarcity)”가 아니라 “풍부함의 원리(plenitude)”를 말한다.<sup>64)</sup> 슈워츠는 어떤 독특한 집단적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성경을 제한하거나 성경의 담론을 총체화 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들 스스로가 지녔던 한계와 이미 세워져 온 한계를 확장하고 확산하는 방식으로 풍요롭게 읽으라고 조언한다.<sup>65)</sup> 듣기를 통해 들려진 파편적인 서사들을 복음의 언어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모든 서사들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 은혜, 구원, 부활 등을 새로운 언어와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설교자의 한정된 눈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눈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초대 될 수 있다.<sup>66)</sup> 따라서, 이 환대의 해석학은 설교자들이 비교적 주목하지 않았던 정보 들에 주목하는 실천이며, 해석 전통을 통해 발견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려는 실천이다.

또한 러셀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듣기의 영성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의 틀을 가지지 않고” 성경을 읽는 실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sup>67)</sup> 즉, 성경과 해석자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대화가 계속될

63)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25.

64) Regina M. Schwartz, *The Curse of Cain: The Violent Legacy of Monotheis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34.

65) Schwartz, *The Curse of Cain*, 33-34.

66) Elna Mouton,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How Far Do We Yet Have To Go?” In *Feminist Frameworks and The Bible: Power, Ambiguity, and Intersectionality*, eds. L. Juliana Claassens and Carolyn J. Sharp, 211-20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7), 213.

67) Russell, *Just Hospitality*, 94.

수 있는 멈춤의 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침묵해야 하고 침묵으로 인해 열린 공간에서 마음으로 응답하는 연습은 성경 본문에서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68)</sup> 러셀은 듣기의 영성을 위해 세 가지를 제시한다: 1)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견해 특히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폭력과 억압을 겪은 사람의 관점에 귀를 기울인다; 2) 성경 내에서 발견하는 모순과 차이점 안에서 본문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공동체와 토론한다; 3)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계시하시도록 성령을 위한 공간을 허용한다.<sup>69)</sup> 이러한 듣기의 실천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의 삶에 침투할 여지에 관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여는 것이다.

## 2. 얇의 윤리

얇의 윤리는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식론적 부정의는 “의사소통의 관행에서 지식, 이해, 참여의 문제와 관련된 불공정한 대우의 형태”로 인식의 난독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70)</sup> 미란다 프리커(Miranda Fricker)는 이러한 인식론적 부정의는 지식인이 누군가에게 저지른 잘못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sup>71)</sup> 프리커가 주장하는 두 가지 부정의—증언적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와 해석적 부정의(hermeneutical injustice)—는

68) Russell, *Just Hospitality*, 95.

69) Russell, *Just Hospitality*, 96-98.

70) Ian James Kidd, José Medina, and Gaile Pohlhaus Jr., eds. “Introduction to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1-9 (New York: Routledge, 2017), 1.

71) Miranda Fricker,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

둘 다 성경과 설교자 자신, 그리고 주변 세계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중요하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 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해석이 아니면 해석적 도구들을 충분히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sup>72)</sup> 이럴 경우 “해석학적 소외”가 발행하고 이 소외는 상대적인 약자 집단 및 개인을 공동체 안에서 소외시키며 결정적으로 그 소외가 드러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부정의를 만들 수 있다.<sup>73)</sup> 다시 말해,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되고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sup>74)</sup>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상과 성경을 보는 눈에서 소외되었는지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소외를 막고 기존의 한계를 열어놓는 측면에서 해석의 확장성과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증언적 부정의는 어떤 특정한 사례에 대해 증언하는 화자와 관련되어 있다. 화자가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청중의 편견이 화자의 말에 신뢰를 감소시키는 경우를 말한다.<sup>75)</sup> 프리커는 이를 “정체성 편견 (identity prejudice)”이라고 부른다.<sup>76)</sup> 이는 내러티브 윤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 윤리는 성경의 어떤 캐릭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혹은 어떤 텍스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본받을 만한가를 판단하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이다.<sup>77)</sup> 재클린 랩슬리

72) Eliana Ah-Rum Ku, “The Hermeneutics of Hospitality for Epistemic Justice,” *Religions* 14 (2023): 7.

73)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53.

74)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51.

75) Fricker, *Epistemic Injustice*, 1.

76) Fricker, *Epistemic Injustice*, 4.

77) Jacqueline E. Lapsley,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24.

(Jacqueline Lapsley)의 읽기 방식은 윤리적 원칙을 찾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 원칙에 따라 등장인물 등을 좋다 나쁘다는 것으로 평가하려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윤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독자의 공감적 반응, 특별히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여긴다.<sup>78)</sup> 즉, 일반화된 윤리 원칙을 찾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의 특수성을 깊게 경험하고 외부에서 평가자 혹은 재판관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sup>79)</sup> 랩슬리의 읽기 방식은 성경이 쉬운 도덕적 평가를 위한 기회가 아니라 윤리적 성찰의 놀라운 다양성과 풍성함으로 독자를 이끈다. 이 다양성은 그저 위협하게 열려 있지 않다. 샤론 웰치(Sharon Welch)가 언급했듯이 설교는 통제 윤리보다 모험 윤리를 내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윤리는 이미 공유된 가치 혹은 이미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 체계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기 위해 다른 공동체, 다른 삶과 행동 체계에 대한 철저한 참여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sup>80)</sup> 이 실천은 상호적인 자기 성찰이 중요하게 작동하며 정당화나 보편적 합의가 아닌 공동체와 연대를 중요시 한다; 이러한 연대는 다시 책임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sup>81)</sup> 소외된 타자에 대한 동정심이 아닌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공정(equ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오류와 수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속적인 상호 성찰에 입각한 인내심 있는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윤리에서 비롯되는 현대의 영성은 생성 AI와 설교자/해석자가 얼마나 긴밀하게 함께 강단을 섬길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정보에만 의존하고 근거한 해석학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

78) Lapsley, *Whispering the Word*, 25.

79) Lapsley, *Whispering the Word*, 25.

80) Sharon D. Welch, *A Feminist Ethic of Ris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0), 15.

81) Welch, *A Feminist Ethic of Risk*, 15.

게 어떤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해석자의 윤리적인 그리고 영적인 성찰을 만났을 때 설교의 참여자들은 하나님 이미지의 무한한 다양성에서 비롯되는 풍성한 복음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즉흥성과 창조성

월슨은 설교가 설교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비평, 신학 비평, 그리고 설교 비평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설교 비평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월슨의 설교 비평은 본문과 오늘의 삶의 자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의 관계, 그리고 존재와 존재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 관계를 이어 주는 것이 상상력임을 보여준다. 서진호는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존재론적 이성(die ontologische Vernunft)’과 ‘이성의 깊이(die Tiefe der Vernunft)’에 대한 개념을 통해 AI가 도구적 이성을 구현하는데 성공적일 수 있지만 “존재자들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다루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 한다.<sup>82)</sup>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설교의 상상력과 설교 안에서 다루어지는 존재들의 관계는 환상적이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을 다루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83)</sup>

복잡한 관계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주어진 선택적 혹은 경험적 정보 안에서 상상하고 이미지와 하며 새로운 통찰력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위해 설교자는 즉흥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sup>84)</sup> 설

82) 서진호, “폴 틸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183-4.

83) Bartow,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156.

84) Troeger, “Imagination/Creativity,” 191.

교 비평과 상상력 그리고 제시된 윤리적 실천들은 1) 계속해서 변화하는 실제의 삶과 그 삶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지금까지 설교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 2) 하나님, 성경, 설교의 참여자들을 해석하는 시선과 대화 방식, 그리고 3) 다양한 경험 등을 복음으로 포함하기 위한 분투라고 여길 수 있기에 더욱이 즉흥성과 창조성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이고 축적되어 온 자료 들이나 적용 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하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수많은 다양한 해석적인 층들이 작동하고 있는 개인 및 공동체와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위해 즉흥성과 창조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즉흥성과 창조성은 설교자 혼자의 것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비판적 성찰을 통한 설교 참여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수행된다. 설교는 축적된 다양한 설교 전통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오류 가능성과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는 열린 차원을 수행하기에 다양한 성경 해석의 차원과 삶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재창조를 수반한다. 이러한 해석적 즉흥성의 필요는 새로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과 삶의 자리를 창의적으로 탐구하도록 설교자들을 격려한다.

새로움에 대한 다양성을 고려하면서 소외된 시선과 담론들에 대한 감수성을 실천하는 것은 대가가 따른다. 설교가 피상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교 참여자들의 삶에서 구체화 되기 위해 설교자에게 자신을 비우고 낯선 이들/상황들과의 대화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내기 위한 영적 수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끊임 없는 헌신을 요구한다. 이 즉흥성과 창조성은 재즈 연주가가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하듯이 매우 숙달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즈 학습자들은 종종 즉흥 연주를 위해 무엇이 적합하고

효율적인 방법인가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즉흥 연주는 단순히 코드를 알고, 스케일을 알고, 기술적인 몇 가지의 요소들을 안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악기를 갖고 닦는 것을 기본으로, 때로는 순식간에 모티브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함께 연주하는 사람들과의 전율 돋는 교감을 할 줄 알아야 하고, 멜로디만으로 감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기도 해야 한다. 이러한 초월 같아 보이는 경지는 오히려 온갖 다양한 방법을 그저 수행하는 것 보다 기본기를 닦는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설교자에게 기본기란 아마도 부르심일 것이다. 중세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설교자 됨’에서 찾았다.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살아내는 것에서 찾은 것이다. 오티스 에드워즈(O. C. Edwards)는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교자들은 영성이 일련의 종교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명 즉 설교자 됨에 대한 소명을 자신들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설교의 의무에서 비롯된 영성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즉, 그들의 영성은 설교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성찰하고 논의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 생겨나는 영성이었다.<sup>85)</sup>

생성 AI의 시대에 설교자의 정체성과 복잡한 상황에 대한 불안함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의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미 가진 것과 새롭게 생겨나는 것들의 역동성 안에서 설교자로서 소명을 다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 있다면 설교자는 더 많은 존재를 품고, 더 많은 경우에 유연하며, 더 많은 시각에서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즉흥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85) Edwards, *A History of Preaching*, 242.

## 【 참고문헌 】

- 구아름. “설교에서 애痛的 중요성과 그 실천의 윤리적 함의.” 『설교한국』 15 (2022), 9-36.
-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서울: 봄날의 박 씨, 2020.
- 목회데이터연구소/지앤컴리서치, “챗GPT에 대한 성도 인식” (2023, 06, 10)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1&page=2](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1&page=2)
- 서진호. “폴 틸리히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 AI 설교의 가능성과 한계.” 『신학논단』 113 (2023), 165-192.
- 앤드루 라우스 편/ 하성수 역.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I』. 서울: 분도출판사, 2008.
- 이승우. “인공지능의 설교 활용에 관한 연구: 챗GPT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64 (2023), 233-57. <https://doi.org/10.57228/KRJ.64.8>.
- 장재호. “ChatGPT와 목회 윤리—인공지능의 목회적 활용에 제기되는 신학적 담론들.” 『신학사상』 201 (2023), 257-83. doi:10.35858/sinhak.2023..201.009.
- Bainton, Roland Herbert.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Abingdon Press, 1950.
- Bartow, Charles L.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ited by Paul Scott Wilson, 154-57.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 Bohren, Rudolf. *Predigtlehre*.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 Braaten, C. E., and Jenson, R. W. *Reclaiming the Bibl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MI: W.B. Eerdmans Pub. Co. 1995.
- Buttrick, David. *Preaching the New and Now*.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 Childs, Brevard S.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Christian Bibl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3.
- Edwards, Otis Carl. *A History of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4.
- Fricker, Miranda.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Fry Brown, Teresa L. *Weary Throats and New Songs: Black Women Proclaiming*

- God's Word*.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3.
- Guthrie, Shirley C. *Christian Doctrine* (50th Anniversary Edition). Louisville, 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2018.
- Hart, Trevor. *Confessing and Believing: The Apostles' Creed as Script for the Christian Lif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22.
- Kidd, Ian James, José Medina, and Gaile Pohlhaus Jr., eds. "Introduction to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pistemic Injustice*, 1-9. New York: Routledge, 2017.
- Ku, Eliana Ah-Rum. "The Hermeneutics of Hospitality for Epistemic Justice." *Religions* 14(2023), 1-10.
- Lapsley, Jacqueline E. *Whispering the Word: Hearing Women's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5.
- LichtKirche, "A warm welcome to the Church of Light at the World Reformation Exhibition!" Accessed May 10 2024. <https://lichtkirche.ekhn.de/welcome.html>
- Liotard, Jean-Francois.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ed by Geoff Bennington and Brian Massumi,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Middleton, J. Richard and Brian J. Walsh.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5.
- Mouton, Elna.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How Far Do We Yet Have To Go?" In *Feminist Frameworks and The Bible: Power, Ambiguity, and Intersectionality*. Edited by L. Juliana Claassens and Carolyn J. Sharp, 211-20.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7.
-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B. Eerdmans, 1999.
- Russell, Letty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 Rutledge, Fleming. *The Crucifixion: Understand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2015.
- Schneiders, Sandra Marie. *The Revelatory Text: Interpreting the New Testament as Sacred Scripture*.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99.
- Schwartz, Regina M. *The Curse of Cain: The Violent Legacy of Monotheism*.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7.
- Spivak, Gayatri Chakravorty.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1990.

Troeger, Thomas H. "Imagination/Creativity," In *The New Interpreter's Handbook of Preaching*. Edited by Paul Scott Wilson, 191-92.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8.

Welch, Sharon D. *A Feminist Ethic of Ris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0.

Welty, Eudora. *A Curtain of Green and Other Stories*.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41.

Wilson, Paul Scott. *God Sense: Reading the Bible for Preaching*.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4.

【 Abstract 】

Homiletical Criticism and Imagination: Preachers and the Era of Generative AI

Eliana Ah-Rum Ku

The advent of generative AI has sparked inquiries into the identity and role of the preacher. This study does not aim to elucidate the preacher's identity and vocation in a manner that denigrates generative AI while asserting an exclusive functional distinctiveness unique to preachers. Rather, its objective is to harness the creative potentials inherent in the uneasy coexistence and unfamiliar dynamics.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initially delve into homiletical criticism and imagination. Homiletical criticism, as advocated by Paul Wilson,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God-centered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s, particularly through the lens of the quadruple reading—historical, allegorical, moral, and prophetic—which offers profound insights into how preachers' perspective can work. The preaching imagination serves as the engine that enables such critical engagement with preaching.

Subsequently, we explore the ethical considerations involved in fostering a culture of hospitality essential for effective homiletical critique and imagination, thereby facilitating the incorporation of diverse perspectives into the pulpit discourse. Cultivating a sense of hospitality is imperative for engaging with the Bible from multifaceted viewpoints that might have been previously disregarded. To practice hospitality in preaching, this study advocates for the adoption of an ethic of listening and an ethic of knowing. The ethic of listening calls for hyper-sensitivity towards marginalized or

silenced voices. The ethic of knowing entails the pursuit of epistemological justice, challenging the biases and constraints inherent in prevailing shared values and interpretative frameworks when engaging with biblical texts, thereby inviting active participation and empathetic understanding.

The interplay between preaching criticism, imagination, and ethical considerations encourages the preacher to embrace a stance of perpetual improvisation and creativity within the dynamic landscape of preaching. Such a practice fosters a holistic reconceptualization of the preacher's identity as an embodied way of life, wherein preaching transcends mere verbal articulation to become a lived experience.

**Key Words:** Homiletical(theological) criticism, Homiletical imagination, Hospitality, Ethics of listening, Epistemic injustice